

화순,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 추진 막바지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 탄생 기대... 내년 3월 준공 세계의 대표적인 거석 조형물·거석 안내판 등 설치

화순군(군수 구충근)이 5년간 추진 중인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세계의 대표적인 거석 조형물 7종·거석안내판 10개 등을 설치하는 등 세계거석테마파크를 조성해 화순고인돌 유적지와 연계해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에 국비와 군비 등 50억 원이 투입됐다. 거석 조형물은 이스터섬 모아이석상, 인도 우산돌, 프랑스 로제 돌멘 등이다.

거석안내판의 세계 거석으로는 라테스톤, 사부섬 고인돌, 스톤헨지 등이 있다. 콜롬비아의 산 아구스틴 돌멘, 북한 관산리 고인돌, 중국 석봉, 인도 우산돌, 아프리카 환상열석은 원형과 같은 크기로 제작하고 원석과 비슷한 석재를 사용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재현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형물의 설치는 완료됐다. 제작 중인 거석 해설판 반입과 쉼터 조성, 조경 공사를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순군의 고



화순 세계거석테마파크의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 전경. /화순군 제공

인돌 유적, 선사 체험장과 함께 거석문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담양, 주민과 함께 만드는 치매안심마을

주민 주도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 사업 운영

담양군 치매안심마을이 주민이 주도한 치매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마을 주민, 면사무소, 치매안심관리사, 자원봉사학생이 함께한 가운데 치매안심마을을 마을담장 벽화 그리기 및 꽃심기와 주변 쓰레기 청소 등 환경정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벽화그림은 희망메시지를 담은 해바라기와 함께 치매파트너 캐릭터인 단비 등을 담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모두가 합심해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힘을 모았다.



또한 치매안심마을로 선정이 됐으나 인지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마을에 주민 주도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lbest1@



장성 황룡면·여성자원봉사회 지역 소외계층에 도시락 전달

장성군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황룡면 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순남)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 30가구를 찾아가 '사랑 사랑 행복한 도시락'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살폈다.

'사랑 사랑 행복한 도시락'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층 위기가구에 정성이 담긴 밑반찬을 전달하고 정서적 지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나눔 행사는 사단법인 자평(子平)이 100만원을 후원하고 황룡면 여성자원봉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뤄져,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순남 황룡면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은 "식생활 지원이 절실하지만 자력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우 황룡면장은 "앞으로도 민간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다"면서 "지역 주민의 복지제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성=유광종 기자 hanjae365@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인문해교실 참여자 및 강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성인문해교실 은빛배움터 수료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 2019년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성료

문자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능력 향상 중점

"이 나이에 학사모도 써보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나주시 성인문해교실 수료생인 공산면 봉곡마을 85세 김 모 할머니가 감격의 눈시울을 흘렸다.

전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인문해교실 참여자 및 강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성인문해교실 은빛배움터 수료식'을 개최했다.

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된 나주시 성인문해교육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지면 죽

동마을 등 7개 마을 6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자 읽기·쓰기·셈하기 등 일상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각 마을에 배정된 문해교육 교사들은 어르신 참여자들이 요청한 장소와 일정에 따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문자 해독, 기초 산술 영역을 비롯해 편지쓰기, 금융활동, 핸드폰 활용, 체험학습 등 맞춤형 학습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2019대한민국 마한 문화제에서 열린 제3회 평생학습축제

전시부스에는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우친 어르신들이 직접 쓴 시와 도자기점시, 문패 작품 등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은 지난 6개월 간 교육 과정을 돌아보는 수업영상 시청, 수료증 전수, 축하, 수료생 기념촬영, 성인문해 전시물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시에서 준비한 학사모, 학위복을 착용하고 단채기념사진을 찍으며, 한자 한자 글을 깨우치며 느꼈을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영광, 신규공무원 영광바로알기 투어 실시

1년 이내 전입 군민 바로알기 투어, 22일까지 신청 접수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최근, 2일에 걸쳐 신규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영광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지역의 명소를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과 인구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영광군 공직자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투어는 불갑사와 백제불교최초조래지 등 문화유적지 탐방과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 한빛원자력 본부 홍보관 등 지역의 명소 견학으로 이뤄졌다.

영광바로알기 투어에 참여한 공무원들

은 "내가 앞으로 일하고 봉사할 영광군의 주요 유적지와 명소를 둘러보니 영광군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긴다"면서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인구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영광에 새롭게 보급자리를 마련한 1년 이내 전입자에게도 영광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해 지역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군정 이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투어 일자는 30일이며 참여 희망자는 22일까지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함평,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 성료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운수)은 최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2019 함평군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위원장 등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 노래자랑,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에서 펼쳐진 노래자랑의 경우 흥겨운 분위기에 참석자 모두 한 데 어우러지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24시 콧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